“될 때까지 정진”…간화선 집중수행 열기 ‘고조’

동국대 간화선 집중수행 현장을 가다

1월 3~9일 교내 무진선원서 개최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직접 지도
“24시간 쉬지 않고 의심이 돼야”
60여 동참자, ‘화두’ 잡고 정진
동참자 “몸과 마음의 변화 체험”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가 1월 3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 법학관 무진선원(좌선실)에서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나는 왜 안 변할까’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오직 화두에 사무쳐 답만 찾으십시오. 빠져나갈 길 따윈 없습니다. 오고 가도 못하는, 꽉 막힌 그 자리에서 젖 먹던 힘을 다해 화두를 참구하세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법문에 동참자들의 눈빛이 성성히 빛난다. 생각 이전 자리, ‘깨달음’을 향한 의심은 커져만 간다. 마치 밤송이를 삼킨 것 같이 불편하고 답답한 ‘의단(疑團)’ 속에서 60여 동참자들의 수행은 깊어져 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1월 3일부터 9일까지 동국대 법학관 무진선원(좌선실)에서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번 집중수행 프로그램은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선 수행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동국대 불교대 석좌교수)이 지도법사를 맡았으며 60여 동참자들을 대상으로 법문, 집중 수행, 면담 등이 진행됐다. 7일 간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동국대 종학연구소에서 발급하는 자체 수료증이 수여된다.

1월 7일 찾은 동국대 무진선원에서는 수불 스님의 간화선 법문과 질의응답이 한창이었다. 수불 스님은 법문에서 “분별할 시간도 아깝다”며 그저 화두에 철저히 사무칠 것을 주문했다. 스님은 “된다, 안 된다,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등 분별하지 말고 ‘그냥 (화두 참구) 해라’”며 “이 공부는 ‘나’를 위한 공부다. 절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오직 답만 찾겠다는 일념으로 수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동참자들의 체험이 담긴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집에 돌아가면 수행이 안 된다”는 질문에 스님은 “24, 48, 72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의심이 이어져야 한다”며 “어떤 환경에 있던 계속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이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끝까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라. 그게 유일하게 살길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불 스님은 동참자들을 향해 죽을 각오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지혜는 체험을 통해 안목이 트여야 얻어지고, 그 지혜를 통해야만 업(業)이 녹는다”며 “알음알이로는 절대 업을 녹일 수 없다. 적당히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죽기 살기로 (화두에) 달려들라”고 동참자들을 독려했다.

스님의 법문은 동참자들의 수행에 박차를 가했다. 오직 화두를 타파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동참자들은 입을 모아 “몸과 마음이 변화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처음으로 간화선을 접한 카피타자 스님(미얀마, 동국대 석사과정)은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수행인 간화선의 ‘맛’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본 것 같다. 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처음에는 오래 앉는 것이 괴로웠지만, 한 순간 그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프로그램에 두 번째로 참여한 한승은(45) 씨는 입고 있었던 ‘두꺼운 갑옷’을 내려놓은 듯한 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처음 참가했을 때는 감을 잡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몸과 마음이 함께 ‘물리적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며 “처음에는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체험을 하다 보니 정말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에서 수학 중인 이지우(41) 씨는 “수불 스님의 지도를 충실히 따르다 보니 어렵지 않게 체험에 다다른 것 같다. 자기 체험이나 경험에 집중하면 더 힘들어진다”며 “‘번뇌’나 마음의 응어리 등 이런 것은 본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눈을 뜨게 되니 희로애락 같은 망상이 녹아내렸다”고 후기를 남겼다.

홍대선원 행턴 2기 출범…청년·외국인까지 확대

1월 5일 경내 법당서 입재식
행자–인턴 개념 연계 인턴쉽
총 4명 2월까지 근무할 예정
준한 스님 “배우고 도전하길”



한국불교 최초의 사찰 인턴쉽, ‘JustBe 인턴쉽 行턴(이하 행턴)’ 2기가 출범했다.〈사진〉 행턴 2기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1기와 달리 30대 청년, 외국인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1월 5일 경내 법당에서 ‘Justbe 인턴쉽 行턴 2기 입재식’을 봉행했다. ‘행턴’은 출가했지만 아직 계를 받지 않은 행자(行者)와 정규직 채용 전 실습 과정을 밟는 인턴(intern)의 합성어로 홍대선원만의 새로운 단기출가 모델이다. 수행과 습의에 집중된 기존의 단기출가와 달리, 행턴 프로그램은 사찰 소임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고 불교공동체에서 수행과 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입재식에는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송산하 행턴 총괄 스태프, 신수용·유솜이·김영호·이승민 등 행턴 1기와 문서윤·홍수민·케빈·진익동 행턴 2기가 자리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행턴 2기에게 “항상 배우고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모든 상황은 나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니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면서 “자기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믿고 도전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턴 2기에는 만19~30세 청년 총 7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4명이 서류와 면접을 통과했다. 대학생으로만 구성된 1기와는 달리 행턴 2기에는 직장 경험이 있는 30대 청년들과 외국인이 동참했다. 교육계 회사에서 근무했던 문서윤(30) 씨는 “홍대선원은 머무를 때마다 위로를 받았던 힐링과 애정의 공간”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그동안 받았던 에너지와 위로를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수민(31, 홍대선원 신도회 도반 1기 회장) 씨는 행턴에 참여하기 위해 중견기업 회계팀에서 퇴직했다. 홍 씨는 “매번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을 채직찔하며 살았는데, 홍대선원에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자원했다”면서 “불교와 명상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케빈(30, 노희원, 캐나다) 씨는 어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지만, 자신도 모르게 불교와 사찰에 끌렸다고 한다. 그는 “그동안 프랑스, 미국, 태국, 한국 등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찰을 참배했다. 그중 해인사 스님의 권유로 한국불교를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행턴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상불사 등 8곳 2024년 우수 녹색사찰 선정

불교환경연대 1월 8일 시상식
전북 귀신사, 하남 상불사 등
환경상에 한마음선원 선정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1월 8일 본부 교육관에서 ‘제7회 녹색사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찰을 시상했다.〈사진〉

대회에서는 2024년 한해 모범적인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한 사찰 및 시설에 상장을 수여했다. 올해 우수 녹색사찰로 선정된 곳은 △춘천 봉덕사(주지 혜욱 스님) △부산 미소원(이사장 장유정) △울산 벽선암(주지 혜진 스님) △고창 귀신사(주지 무여 스님)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 스님) △의정부 석림사(주지 능인 스님) △화순 시적암(주지 법일 스님) △울산 서장사(불성 스님)이다.

또한 ‘그린붓다데이’ 캠페인으로 사부대중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일깨운 전국비구니회는 특별상을 받았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협동조합 지구사랑작은실천 운영과 유용미생물군(EM) 보급, 환경교육 등을 통해 대중들의 환경의식을 높인 공을 높이 평가받아 환경상을 수상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꼭 사찰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회시설에서 환경 활동에 참여해준다면 우리나라는 녹색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가령 기자

태고종 안심정사, 대학교 불교 강좌 지원

2월 20일까지 공모 진행

도심 포교를 이끌고 있는 태고종 논산 안심정사가 청년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 불교 강좌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태고종 논산 안심정사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 대학교 불교 강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불교계 종립대학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불교와 사회복지, 심리상담, 불교문화와 예술, 불교와 인간관계, 불교와 세계문화, 불교와 환경 등 불교 교양 강좌로 전국 4년제 대학 소속 교수와 강사들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 1학기이며, 강좌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jyk901@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교수와 강사들에게는 오는 2월 28일 개별 통보가 이뤄진다.

신중일 기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5학년도 학점 은행제 신(편)입생 모집안내

(교육부 학위 인정 교육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전형일정 | 2025년 1월 1일 ~ 2월 28일
■개 강 | 2025년 3월 첫째주 3월 4일 (화요일)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 향 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